

해남, 경제위기 긴급대응 나선다

올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715억원 투입 45개 사업 추진

해남군이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물가안정,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경제활성화에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1월부터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45개 사업을 발굴,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총 715억여원이 투입되는 물가·민생안정 대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과 농수축산물 가격안정 및 소비촉진,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계층별, 분야별로 촘촘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이 실시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인증 우수

료 지원 등 10개 사업에 8억 6,000만원이 투입되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3종사업에 8억 4,500만원이 지원된다.

카드수수료와 배달수수료 지원에 3억 4,000만원, 버스업계 손실재정지원에 34억여원이 투입된다.

전국 군단위 최대 규모인 해남사랑상품권은 올해도 1,450억원 규모로 발행예정인 가운데 판매 등을 위해 142억여원을 지원한다.

특히 해남군만의 자체 물가안정 사업도 추진한다. 군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봉투값을 동결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7~8월분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물품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자율적 요금동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건전소비 캠페인도 전개한다.

해남군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어업 집중 지원을 통해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지속적인 유가 상승에 따라 농어업용 면세유 인상액의 50% 지원기간이 오는 10월까지 연장된다. 축산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 융자금액을 27억원에서 127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0.8% 인하, 상환기간은 3년까지 연장된다. 또

한 무기질 비료 3만 1,870톤에 대해 비료가격 인상분 차액의 80%를 지원한다.

또한 농수특산물 온라인 프로모션과 농축산물 소비촉진 쿠폰 발행, 직거래 장터 운영, 판촉 행사, 로컬푸드 소비촉진 행사 등도 대대적으로 확대 지원된다.

경제위기에 노출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실시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에 21억원이 지원되며, 소액 주거불편 해소와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복지기동대 운영도 472가구로 확대돼 연중 운영한다.

오지마을을 운행하는 해남사랑택시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 택시 운행이 확대돼 6억 7,000여만원이 투입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연간 78억여원이 투입되며, 긴급복지사업에도 8억 8,000만원이 지원된다.

명현관 군수는 “급격한 물가상승과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발굴,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의 징후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군민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고, 경제활성화를 신속히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병태 기자



화순군이 지난 2019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복숭아 수확이 최근 시작됐다. 사진은 금황을 재배한 한 농장. /화순군 제공

화순, 복숭아 보급 품종 첫 수확

화순군이 적극적으로 농가에 보급해 온 국내 육성 복숭아 품종을 올해 처음으로 수확을 시작했다.

25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국내 육성 복숭아 품종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화순은 복숭아 주산지로서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수확기 집중에 따른 노동력 분산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해 10ha 규모의 농장에서 보급 품종을 재배했다.

이달부터 출하가 시작된 품종은 백육계 ‘홍백’, 황육계 ‘금황’, 천도계 ‘스위트퀵’과 ‘엘로드림’이다. 엘로드림은 껍질째 먹는 당도 높은 천도복숭아로 2016년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국내 최초의 스위트네타린 품종이다. 금황은 7월 초 수확하는 조생종 황도복숭아로 과실의 크기가 300g 이상인 대과종이다. 7월 하순부터는 홍백과 스위트퀵도 출하한다. /화순=이종백 기자

‘전국노래자랑 무안 편’ 관람객 5천명 성황

고구마·양파 등 특산품 홍보

국내 최장수 방송프로그램인 KBS 전국노래자랑 무안군 편 공개 녹화가 지난 23일 화산백련지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특히 ‘전국노래자랑 무안군’ 편은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제25회 무안연꽃축제를 기념하며 관람객 5,000여명이 운집하면서 성황을 이뤘다.

공개 녹화에서는 예선에 참가한 200여명 중 치열한 경연을 통해 선발된 15개 팀이 나와 그동안 갖고 닦은 끼와 노래실력을 겨뤘다.

본선은 이호섭 작가와 임수민 아나운서의 구수한 입담으로 진행됐으며, 농부, 전남예술고 학생, 주부, 주방장 등 끼와 재능이 넘치는 출연자들이 자신만의 색다른 무대를 선보였다.

군민과 축제 방문객들은 2시간 동안 흥겨운 노래자랑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김연자, 김혜연, 박구은, 박진도, 원플러스원 등 유명 초청가수도 출연해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지난 23일 화산백련지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전국노래자랑 무안군 편 공개 녹화에 관람객 5,000여명이 운집하면서 성황을 이뤘다. /무안군 제공

일부 출연자들은 무안을 대표하는 특산품인 고구마, 양파 등을 직접 들고 나와 지역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김산 군수는 “10만여 평에 달하는 동양 최대의 백련자생지인 화산백련지에서 대한민국 대

표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 방송을 녹화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전국노래자랑을 통해 무안 연꽃축제가 더욱 유명해지길 바라며 무안에 오신 모든 분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담양, 보건의료기관 기능 보강 ‘총력’

진료소 개·보수 컴퓨터 제공

담양군이 기존 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확대해 건강증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5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 요구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으로 보건의료기관의 다양한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2019년부터 가사문화·대덕 보건지소와 복정·외주 보건진료소의 증축과 이전 신축을 통해 주민들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했다.

이러 2020년에는 월산보건지소, 원주보건진료소 개·보수를 통해 주민 컴퓨터를 제공하고 다양한 보건교육을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존 창평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해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의 체계를 구축했으며, 기존 보유장비의 노후화와 고장으로 인해 의료장비의 교체가 필요한 보건기관에 의료장비를 보강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신안군새마을회, 헌 옷 수거 경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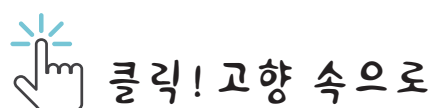
신안군새마을회는 최근 압해읍 군민체육관에서 미니멀 라이프 실천 운동 일환으로 ‘헌 옷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박우량 군수와 오인석 새마을지회장을 비롯해 읍·면별 새마을을 남·여 지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협력 자원순환’ 캠페인과 ‘클린 아우어 홈’ 캠페인을 연계 추진해 의

미를 더했다.

신안군새마을회는 이날 대회에서 계속한 읍·면별 수거량 총 30여톤과 오는 11월 2차 경진대회를 거쳐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다.

또 경진대회 결과 수익금은 신안군복지재단에 기부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신안=이주열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장흥군오리협회, 장학금 500만원 전달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는 최근 장흥군오리협회(회장 조국동)에서 인재육성 장학금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장흥군오리협회는 오리 산업 발전을 위해 오리를 사육하는 42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오리협회는 지난 2019년 500만원을 기부한데 이어 올해도 농가들이

정성을 모아 미래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에 힘을 보탰다.

조국동 회장은 “항상 군민과 농가를 위해 힘 써주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는 장흥군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회원들끼리 의견을 모아 기부했다”고 밝혔다. /장흥=이옥현 기자



수자원공사, 신안 가뭄지역에 물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은 최근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신안군 도서낙도 주민들에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한 비상 급수용 병물 5,000병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안군은 특성상 섬으로만 형성돼 담수 할 수 있는 유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작은 가뭄에도 먹는 물 부족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흑산도, 대도도, 만재도 지역이 담수량이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어 식수 공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창민 단장은 “앞으로도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신안군 도서낙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주연 기자



영광, 법성포굴비거리 음식점 컨설팅

영광군은 남도음식거리인 법성포 굴비음식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까지 34개 굴비음식점에 대해 메뉴 개발·위생·친절서비스 등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법성포 굴비음식거리는 지난해 법성포 일원에 지역 특색에 맞는 굴비음식과 문화의 거리로 음식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

성됐다.

이번 컨설팅에는 남도의식문화개발원 이은상 대표 외 3명의 전문가가 굴비정식 음식점을 업소별 방문해 음식을 시식하고 상차림부터 메뉴개발, 위생, 친절서비스, 경영마인드까지 상담·지도하고 있다.

/영광=곽용순 기자